

研究論文

# 新羅末期의 王土思想과 社會變動\*

콘도 고이치(近藤浩一)\*\*

I. 머리말	IV. 新羅末期의 王土思想과 國家支配의 再建策
II. 崔致遠의 『四山碑銘』에 보이는 王土의 性格	V. 맺음말을 대신하여: 田券製作과 관련하여
III. 國內外 情勢의 變化와 六頭品知識人의 現實認識	<참고문헌>
	<국문요약>

## I. 머리말

9 世紀末, 崔致遠이 왕명을 받아 禪僧들의 공적과 사원에 대하여 찬술하여 건립된 雙溪寺 眞鑑禪師碑(慶尙南道 河東의 智異山)와 鳳巖寺 智證大師碑(慶尙北道 聞慶의 曦陽山), 그리고 碑石의 원형은 남아 있지 않지만 후세의 寫本인 『四山碑銘』에 그 기록이 남은 大崇福寺碑(慶尙北道 慶州 初月山)에는 王土라는 어구가 수차

\* 본 논문은 釜川科學研究助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일본 東京大學韓國朝鮮文化研究 博士課程, 한국고대사 전공(kkondo76@yahoo.co.kr).

1) 16世紀末~17世紀初 朝鮮, 宣祖와 光海君代 시기에 中觀海眼들이 사용한 지 본문에서 언급한 3 개 비석과 萬壽山 聖住寺의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를 합쳐 『四山碑銘』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고에서의 『四山碑銘』의 原文 및 注釋은 李佑成(校譯), 『新羅四山碑銘』(亞細亞文化社, 1995)의 해당 부분에 따랐다. 그 이외에도 黃壽永 編, 『韓國金石文總覽(上)』(亞細亞文化社, 1976);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第3卷)』(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82) 등이 있다.

례 등장한다.

新羅의 王土思想<sup>2)</sup>은 일찍부터 연구자의 관심을 모았다. 관심의 주대상은 특히 田地의 소유권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종사한 李佑成<sup>3)</sup>과 朴時亨<sup>4)</sup>은 碑文에 나타나는 王土와 公田의 개념 차이 및 公田과 私田地(私田)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신라에서는 王土思想이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였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토지소유가 王土思想에 의해 결정되었던 적은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즉, 신라국토에는 공전(공유지)이 아닌 사유지가 명백히 존재하였다는 연구결과는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게 비록 비판적이지만 꾸준히 계승되어 韓國土地制度史 관련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기에 이른다.<sup>5)</sup>

위에서 언급한대로 王土思想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土地公有의 이념적 역할과 관련된 측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王土라는 용어가 실제로 碑文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고찰의 대상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신라의 王土思想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분석해야 할 연구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李佑成과 朴時亨도 인정하였듯이 비록 관념뿐일지라도 신

- 2) 王土思想이란 중국의 『詩經』의 一節에서 나온 「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이라는 어구에서 유래되었다. 그 이후 王土는 『左傳』들의 내용 가운데서도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한층 강조된다. 말하자면 此土의 俗權을 장악하는 정점에 국왕을 두고 현실세계의 토지와 인민에 대해 국왕이 통치한다고 하는 支配思想이다. 자세한 平中答次 「王土思想의 考察」, 『中國古代의 田制와 稅法』(東洋史研究會, 1976); 堀敏一, 「中國의 律令制와 農民支配」, 『律令制와 東アジア 世界』(及古書院, 1994) 등을 참조
- 3) 李佑成, 「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 『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1965); 李佑成 『韓國中世社會研究』(一朝閣, 1991); 李佑成, 「高麗의 永業田」, 『歷史學報』 제8 집(1965) 도 같은 취지를 다룬 논문이다.
- 4) 朴時亨, 「통일신라시대의 봉건적토지제도의 발전」, 『朝鮮土地制度史(上)』(사회과학원출판사, 1960).
- 5) 대표적인 것은 吉田孝, 「「律令國家」と「公地公民」」, 『律令國家と古代社會』(岩波書店, 1983), 54~55 쪽; 吉田孝, 「編戶制・班田制의 構造的 特質」, 『律令國家と古代社會』(岩波書店, 1983), 220~227 쪽; 浜中昇, 「高麗의 公田과 私田」, 『朝鮮古代의 經濟와 社會』(法政大學出版局, 1986), 228~232 쪽; 金三守, 「三國遺事에 나타난 所有權事例에 關한 考察」, 『法史學研究』, 제7 집(1983), 9~15 쪽; 김기홍, 「통일신라의 조(租)·조(調)」,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사회변동과 관련하여』(역사비평사, 1991), 152~154 쪽; 李喜寬, 「農民의 土地 所有 및 經營과 그들의 社會經濟的 地位」, 『統一新羅土地制度研究』(一朝閣, 1999), 153~155 쪽; 이인철, 「귀족의 경제 기반과 농민 생활」, 『신라 정치경제사 연구』(일지사, 2003), 250~252 쪽; 이인철, 「사적 토지소유관계의 전개」, 『신라 정치경제사 연구』(일지사, 2003), 317~319 쪽 등이 있다.

라에 王土가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王土思想이 국가제도 안에서 토지소유와 관련하여 작용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비문에 보이는 王土 그 자체의 고찰이 필수인 것이다.<sup>6)</sup>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신라 王土思想이 표현된 비문의 作成年代가 신라시대 중에서도 국내외의 정세가 가장 동요하는 憲康王 때부터 眞聖女王代頃에 이르는 한정되는 시기라는 점이다. 신라 말이라는 극히 한정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王土가 기재된 비석이 등장하는 것이다.

본고는 많은 자료적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崔致遠의 『四山碑銘』에 보이는 王土의 의미를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비문에 보이는 王土가 비문의 전후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선행연구에서 배우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시점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또한, 王土라는 어구를 사용한 崔致遠, 즉 신라말기의 六頭品知識人의 新羅國土에 대한 現實認識을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염두에 두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에 이들을 바탕으로 신라에 王土思想이 채용된 이유를 명확히 하고 싶다. 그들을 통해서 王土思想의 生成背景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新羅社會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명료해지리라고 생각한다.

## II. 崔致遠의 『四山碑銘』에 보이는 王土의 性格

大崇福寺碑는 비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憲康王 12년(886)부터 찬술되기 시작하여 定康王代를 거쳐 眞聖女王 10년(896)경에 건립되었다. 그 건립 목적은 憲康王이 작성을 명한 崔致遠에 의한 다음 자료1-②에서 엿볼 수 있다.

6) 이에 관해서 日本古代中世史의 분야에서는 王土思想에 대해 河音能平, 「王土思想と神佛習合」, 『岩波講座日本歴史4 古代4』(岩波書店, 1976); 河音能平, 『中世封建社會の都市と農村』(東京大學出版會, 1984). 이후 최근의 三谷芳幸, 「律令國家の山野支配と王土思想」, 『笹山晴生編 日本律令制の構造』(吉川弘文館, 200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도 그들의 연구성과에서 많이 배웠다. 勝浦令子, 「古代における禁獵區政策」, 『古代史論叢下卷』(吉川弘文館, 1978); 伊藤喜良, 「王土王民・神國思想」, 『日本中世の王權と權威』(思文閣史學叢書 1993); 村井章介, 「王土王民思想と九世紀の轉換」, 『思想』, 제847집(1995); 木村茂光, 『國風文化の時代』(青木書店, 1997); 木村茂光, 「10世紀の轉換と王朝國家」, 『日本史講座3 中世の形成』(東京大學出版會, 2004); 佐藤弘夫, 「中世佛教における佛土と王土」, 『神・佛・王權の中世』(法藏館, 1998)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으로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다시 적기로 한다.

## 자료 1

中和乙巳年(885)秋 敎曰 善繼其志 善述其事 永錫爾類 在我而已 先朝所建鵠寺 宜易榜 爲大崇福寺① 其持經開土 提綱淨吏 南畝以資供施 一依奉恩故事… 慶曆景午年(886)春 願謂下臣(崔致遠)曰 禮不云乎 銘者自名也 以稱其先祖之德 而明著之後世 此孝子孝孫之心也 先朝締構之初 發大誓願 金純行與若父肩逸 嘗從事於斯矣 銘一稱而上下皆得 爾宜撰銘② 臣(崔致遠)也浪跡星槎 偷香月桂…今讀鄉史 完是聖祖大王朝(元聖王)事蹟…伏惟大王(眞聖女王)殿下 瓊萼聯芳 璇源激爽 體英坤德 纘懿天倫…且以文(景文王)考成佛宮 康王(憲康王)施僧供 已峻琉璃之界 未刊琬琰之詞 申命瑣才 俾搖柔翰③(「大崇福寺碑」).

※( )의 年號와 人物名은 원문과는 관계없이 본고를 작성하기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追記한 부분이다.

이것으로 보아 비의 건립목적은 寺에 關여한 歷代 왕의 德業을 중심으로 비의 건립에 關여한 人들 的 이름을 후세까지 전해 남기는 것에 있던 것이 분명하다. 또 崔致遠이 직접 언급한 부분인 자료1-③에는 大崇福寺가 景文王과 憲康王·眞聖女王의 盡力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자료-①과 다음 자료2-①에서 大崇福寺의 원래 이름은 鵠寺이고, 景文王이 즉위한 첫 해(861)에 元聖王의 追善을 위해 그 園陵에 부속·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를 계승한 憲康王이 885년에 敎를 내려 大崇福寺라고 이름을 고치고 있다

이제 위와 같은 大崇福寺碑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자료2-⑤에 나타나는 王土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다른 두 비문과 비교해 볼 때 바로 王土라는 어구가 公田과 상대되는 형식으로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특히 주목된 점이다.

## 자료 2

金城之麗 日觀之麓 有伽藍號崇福者 乃先朝嗣位之初載(景文王元年·861) 奉爲烈祖元聖大王園陵追福之所修建也① 粵若稽古寺之濫觴 審新刹之覆簣② 則昔波珍浪金元良者 昭文王后之元舅 肅貞王后之外祖也 身雖貴公子 心實眞古人 始則謝安縱賞於東山 儼作歌堂舞館 終乃慧遠同期於西境 捨爲像殿經臺③…洎貞元戊寅年(798)冬 遺(元聖王)敎窳窳之事 因山是命 擇地尤難 乃指淨居 將安秘

殿…而莅政者 譏曰梵廟也者 所居必化 無往不諧 故能轉禍基爲福場 百億劫濟其危俗 靈隧也者 類垞坤脈 仰揆乾心 必在苞四象于九原 千萬代保其餘慶 則也法無住相 禮有成期 易地而居 順天之理④…其成九原 則雖云王土 且非公田 於是括以邇封 求之善價 益丘隴餘貳百結 酌稻穀合二<sup>7</sup>千苫 旋命所司 與王官之邑 共芟榛徑 分蒔松埏 故得蕭蕭多悲風 激舞鳳歌鸞之思 鬱鬱見白日 助盤龍踞虎之威⑤ 且觀其地 壤異瑕丘 境連場谷…(「大崇福寺碑」).

먼저, 王土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를 말하자면 “陵九原 을 이룩한 곳은 비록 王土라고 말하지만 실상 公田이 아니므로 왕 葬地의 부근 일대를 (국가가) 稻穀二千苫을 주어 구입하였다”<sup>8)</sup>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신라국가 또는 국왕이 王陵域으로 改造하기 위해 비록 王土라고 말하지만 실상 公田이 아닌 토지를 종래의 소유자한테 비용을 주어서 직접 토지를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장소에는 원래 肅貞王후의 外祖父인 波珍滄 金元良이 자신의 別莊을 희사해서 창건한 鶴寺가 소재하고 있었고(자료2-③), 798년의 元聖王이 崩御하였을 때 元聖王의 遺言에 따라 風水地理上의 吉地인 이 땅에 대해 국가가 葬地(王陵)로 결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자료2-④).

王土에 대해서는 신라의 국가제도에서 公田과 私田을 포괄하는 中國的 王土思想이 작용하였다는 吉田孝의 견해도 있지만, 연구자의 상당수는 이 경우의 王土란 관념적인 것이지, 실질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한다.<sup>9)</sup> 그러나 위의 자료는 禪師의 공적이나 寺의 발전을 일컫는 美辭麗句를 열거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

7) 주지한 바와 같이 大崇福寺碑는 현존하지 않지만 그 跡地라고 보이는 장소에서는 몇 개의 碑片이 발견되어 있다. 李佑成校譯, 「大崇福寺碑의 注128」, 『新羅四山碑銘』, 102 쪽에 의하면 모든 版本과 寫本에는 이 글자를 「二」字로 되어 있으나 崔南柱가 발견한 碑片에는 一과 같은 글자인 「弍」字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본문에서는 李佑成校譯, 위의 책에 따라 표기하였다.

8) 「益丘隴餘櫟百結酌稻穀合二千苫」의 부분은 二百餘結의 전지를 陵에 주어 거기서 稻穀二千苫을 稅로서 징수하여 능의 守護費에 충당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李佑成, 앞의 논문(1965), 7 쪽에서 지적하는 듯이 酌란 보상(대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二百餘結의 전지를 구입하기 위해 稻穀二千苫을 지불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구나 二百餘結의 구체적 내용은 「共芟榛徑分蒔松埏·蕭蕭多悲風·鬱鬱見白日」이 아닌가 짐작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松林을 말하는 것이 되며, 三谷芳幸, 앞의 논문(2003)에 보이는 것 같은 山野支配와 王土思想의 관련으로도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과제로 하고 싶다.

9) 注(3), (4), (5)의 각 논문을 참조

려 王陵에 관한 지극히 현실적 문제를 기재한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王土思想이 元聖王代로부터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비문이 작성된 당시의 신라에는 王土觀念이 존재했으며, 王土思想이 실제로 현실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그 토지가 공전인지 사전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모든 땅이 王土라고 인식되었다는 여부가 더욱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토지의 代價等에 관계하는 구체적 상황을 기재하는 서두에 「其成九原則雖云王土…」라고 명기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지배자, 적어도 비문을 작성한 崔致遠을 비롯한 當代의 知識人들은 자기 나라(신라의 땅)를 王土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新羅國土=王土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아도 틀림없다.

자료2에서 王土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 있어 다시 한번 주목되는 부분은 「粵若稽古寺之濫觴審新刹之覆簣」(자료2-②)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大崇福寺의 건립과정 및 元聖王陵 조성과 관련되는 자료2-①, ③, ④, ⑤는 비문이 작성되었을 때인 890년 전후에 기왕의 내력을 조사하는 가운데 회고되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장소는 景文王이 즉위하여 정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비문의 건립목적도 烈祖 元聖大王을 모시고 그를 통해 景文王 이후의 신라국왕의 德業을 알려주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가운데 등장하는 王土도 당연히 이러한 역할을 보충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위의 자료에 보이는 王土思想은 861년 이후의 景文王의 王陵整備 및 大崇福寺(鶴寺) 건립과 관련하여, 더욱 말하면 자세히는 다음에 논하지만 비문이 작성되는 신라말기에 활동이 현저히 두드러지는 崔致遠을 비롯한 六頭品知識人들의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하튼 9세기말의 신라에서는 王土思想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었다고 본다. 王土思想이 王者의 권위를 보여주는 支配思想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王土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두 번째 자료는 雙溪寺 眞鑑禪師碑이다. 이 비문은 定康王 元年(886)부터 찬술되어 887년에 건립되었다. 건립목적은 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에 건너가 禪宗을 신라에 전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眞鑑禪師 慧昭(824~850)의 공적을 남기는 것에 있었다. 그러므로 비문의 기재내용도 그에

관련한 내력이 중심을 이룬다.<sup>10)</sup> 그리고 崔致遠에게 내린 왕명에 의해 작성된 내용은 다음 자료3이다

자료 3

獻康大王(憲康王) 恢弘至化 欽仰眞宗 追諡眞鑑禪師 大空靈塔 仍許篆刻 以永終譽…而龜未載石 龍遽天 今上(定康王)繼興 墳簞相應 義諧付囑 善者從之…使視其寺之所枕倚 則以門臨複潤 爲對 乃錫題爲雙溪焉 申命下臣(崔致遠)曰 師以行顯 汝以文進 宜爲銘 致遠排手曰…(「眞鑑禪師碑」).

위의 내용을 보면 眞鑑禪師를 追諡하고 雙溪寺라는 이름을 下賜한 것은 憲康王과 定康王이다. 그리고 眞鑑禪師의 활동과 국왕의 관계가 구분된다고 해도 그 작성목적이 大崇福寺碑와 마찬가지로 왕의 덕업을 칭송하는 데에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을 갖는 다음 자료 4 - ③에 王土가 등장한다

자료 4

泊開成三年(838) 愍哀大王(閔哀王) 驟登寶位 深託玄慈 降璽書餽齊費 而別求見願 禪師曰 在勤修善政 何用願爲 使復于王 聞之愧悟 以禪師色空雙泯 定惠俱圓 降使賜號爲慧昭 昭字避聖祖廟諱 易之也 仍貫籍于大皇龍① <中略> 禪師性不散樸 言不由機 服煖縵履 食甘糠粃 茅菽雜糝 蔬佐無二 貴達時至 會不異饌 門人以塲腹進難 則曰有心至此 雖糲何害 尊卑素樸 接之如一② 每有王人 乘駟傳命 遙祈法力 則曰凡居王土而載佛日者 孰不傾心護念 爲君貯福③ 亦何必遠汚綸言於枯木朽株 傳乘之飢不得齧 渴不得飲 吁可念也 或有以胡香爲贈者 則以瓦載糖灰④…(「眞鑑禪師碑」).

자료4는 전체 내용으로 판단할 때, 眞鑑禪師의 人物像을 칭찬하기 위해 비를 작성한 당시에 회고한 一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王土의 어구를 기재하는 자료 4-③과 ④는 그의 뛰어난 品性을 總括한 자료 - ②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10) 眞鑑禪師의 내력 및 그 禪思想에 대해서는 金福順, 「眞鑑禪師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民族社, 2002); 김두진, 「진감선사탑비와 혜소의 선종사상」,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2005)를 참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王土에 관련된 요지의 내용은 “王의 使者(王人)가 驛馬(?)를 타고 命을 전하면서 멀리 法力을 祈願하면 곧, 眞鑑禪師는 이 王土에 살면서 佛日을 머리 위에 인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護念에 마음을 기울여 임금을 위해 福을 모으려 하지 않겠습니까?”고 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전후 문맥으로 판단한다면 王京에서 이 땅까지 파견되어 온 王使의 고생을 위로하면서(자료4-④), 王京에의 요청이나 皇龍寺로의 편입체의들(자료4-①)을 정중히 거절하였다는 것이라 짐작된다.

위의 자료에 보이는 王土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의 문맥에서 王土라는 어구 이외에 田地와의 관계를 직접 나타내는 기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단순하게 왕의 영역을 의미하는 뿐이고,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sup>11)</sup> 하지만 大崇福寺碑의 예에서도 언급했던 듯이 「凡居王土而佛日者…」의 안에 포함된 뉘앙스 그 자체가 이 토지를 지배하는 왕자의 권위를 알려주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의식이 성립해서 기능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 자료를 통해 새롭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王土란 왕의 法力이 미치는 토지라는 점이다. 그 장소에는 법력을 받아 사는 사람(「凡居王土而佛日者」)<sup>12)</sup>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검토하는 자료6-②의 智證大師碑에서도, 희사된 토지에 대해 「…佛土可期, 雖曰我田且居王土…」라고 설명하는 등 王土와 佛土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볼 때, 당시의 王土와 佛土·法力(佛法)은 일체의 관계에서 기능하고 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sup>13)</sup> 역설적으로 말하면, 王의 法力이 미치지 않은 땅은 王土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王土란 극히 한정된 空間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王土에 살고 왕을 위한 護念에 마음을 기우는 자”도 그곳에 존재하는 이른바 王民이라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 장소(新羅國土)에는 당연히 王土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별하는 어느 명확한 境界도 존재하였다

11) 注(3)·(4)·(5)의 각 논문을 참조

12) 자료 중에 보이는 왕의 使者인 「王人」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13) 日本中世의 예이지만 佐藤弘夫, 앞의 논문(1998), 31쪽에 따르면, 일본의 平安시대부터 鎌倉시대로 전개된 天台·眞言의 불교는 그 땅을 통치하는 世俗 權力者の 존재(국왕)를 부정·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佛教徒 측도 此土=佛土라는 이념을 전제로 하면서도 저항 없이 王土思想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佐藤弘夫, 앞의 논문(1998)은 불교의 전통적 이념인 國土即佛土論과 王土思想의 관계를 3類型에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下線部の 王土란 閉鎖的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sup>14)</sup> 더구나 위의 자료로 엮볼 수 있는 王土思想(「居王土而佛日者」 등)은 이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支配思想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전부터 新羅國土=王土라는 관념이 있고, 거기에 王民이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第3 者의 시각으로 작성 건립되는 비문에 일부로 이러한 것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鳳巖寺 智證大師碑인데, 이 비문은 憲康王 11年(885)에 찬술하도록 왕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비문건립은 眞聖女王 7년(893)경부터 시작되어 『四山碑銘』 가운데 가장 늦은 景哀王元年(924)에 완료되었다

자료 5

太傅王(憲康王)馳鑿問疾 降駟營齊 不暇無偏無頗 能諧有卒 特教菩薩戒弟子建功鄉令金立言 慰勉諸孤 賜諡智證禪師 塔號寂照…乙巳歲(885) 有國民媒儒道嫁帝鄉 而名掛輪中 職攀柱下者 曰崔致遠捧漢后龍緘 齋淮王鵠幣 雖慙鳳舉 頗類鶴歸 上(憲康王)命信臣清信者陶竹陽 授門人狀 賜手教曰 縷褐東師 始悲西化 刺繡衣西使 深喜東還 不朽之爲 有緣而至 無恠外孫之作 將酬大士(智證大師)之慈…(「智證大師碑」).

비의 건립목적은 崔致遠에게 내린 자료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듯이 禪宗九山派의 하나인 曩陽山門 開創에 종사한 智證大師 道憲의 내력 및 국왕과의 관계를 남기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의 두 개 비문과 거의 마찬가지로였다. 그리고 다음의 자료6은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鳳巖寺의 개창 과정을 설명하는 一節이지만,<sup>15)</sup> 그 중에 王土가 기재된 내용이 보인다.

14) 村井章介, 앞의 논문(1995), 24~30쪽; 村井章介, 「九世紀日本の國家意識と國際意識」, 『アジア遊學』 제26집(2001)은 日本中世의 王土思想이 가지는 폐쇄적 측면을 강조한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王土란 그 땅에 사는 왕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것과 함께 王化가 미치지 않은 化外와의 관계로 규정될 공간이 된다.

15) 曩陽山門의 開創에 관한 여러 문제는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제7집(1972); 김두진, 「曩陽山門의 성립과 宗系의 변화」, 『靑溪史學』 제18집(2003); 曹凡煥, 「新羅 下代 智證道憲과 曩陽山門의 성립」, 『新羅史學報』 제4집(2005)를 참조

## 자료 6

至八年丁亥(867) 檀越翁主 使茹金等 持伽藍南畝 暨臧獲本籍授之 爲壞袍傳舍 俾永永不易 大師因念言 王女資法喜 尙如是矣 佛孫味禪悅 豈徒然乎 我家匪貧 親党皆歿 與落路行人之手 寧充門弟子之腸① 遂於乾符六年(879) 捨莊十二區田五百結 隸寺焉 飯孰譏囊 粥能銘鼎 民天是賴 佛土可期 雖曰我田 且居王土 始資疑於王孫韓瓘繼宗執事侍郎金八元金咸熙及正法大統釋玄亮 聲九臯 應千里 贈太傳獻康大王 恕而允之 其年九月 敎南川郡統僧訓瓘 標別墅畫正場② 斯盖外佐君臣益地 內資父母生天 使續命者興仁 賞歌者悛過 檀捨之是三焉(「智證大師碑」).

우선 王土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6-②는, 憲康王5年(879)에 智證大師가 莊十二區田五百結을 寺에 회사하는 경위와 이에 따른 행정상의 수속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다. 이것에 앞서 자료6-①에서는 智證大師가 토지를 회사하기로 한 동기를 설명한다. 智證은 당시 住持로 있던 賢溪山 安樂寺에서 未亡人 王女(景文王의 姊) 檀越翁主가 모두 南畝와 臧獲(田地와 奴婢文書)을 회사한 행위에 감동해서 그 자신도 이를 결심하였던 것이다.

거기서 다시 王土에 관련되는 부분의 요지를 말하면, “我田이기는 하지만 또한 王土에 있는 것이므로 執事侍郎 金八元·金咸熙들의 當事者를 거쳐 마침내 王(憲康王)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왕은 소재지의 統僧으로 하여금 회사된 莊田에 別墅를 표시시켜 사원 소유의 경계를 확실히 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王土에 있는 田地이므로 왕의 동의를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新羅政府가 國民들이 사원에 토지 자산을 자의적으로 寄進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왕의 充可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王의 充可란 하나의 節次上的 문제일 따름이며, 王土라는 것도 역시 관념적인 표상에 불과하였다고 한다.<sup>16)</sup>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원래는 금지된 위의 행위들이 王土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합리화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서두에 「雖曰我田且居王土…傳獻康大王恕而允之」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

16) 註(3)·(4)·(5)의 각 논문을 참조. 여기서는 李佑成, 앞의 논문(1965), 11쪽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해 볼 때, 王土인 것, 그리고 왕의 인가를 얻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종래의 법령으로는 금지되어 있던 것들-사원에 토지나 자산을 자의적으로 희사하는 행위들<sup>17)</sup>-을 王土라는 이유를 붙여 새롭게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sup>18)</sup> 즉 王土思想에는 기왕의 法에 위반되어도 그것을 합리화시킬 만한 힘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측(여기서는 국가)은 王土라는 새로운 支配思想을 이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행위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 다음에 상술하겠지만 당시의 社會 經濟的인 구조의 변화와도 표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신라말기의 國制의 근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9세기말의 신라에서 기능한 王土思想은 왕의 법령·왕명이 미치는 땅인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內와 外를 구분하는 경계인식을 포함하면서, 內의 공간(신라국토)을 새롭게 정당화하고 王土에 사는 사람들을 왕 밑에 재편하는 지배사상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王土란 무제한하게 퍼지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극히 한정된 지배영역을 의미하고 있었다. 적어도 본래의 中國的 王土概念<sup>19)</sup>과는 異質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王土觀은 특히 기왕의 질서가 변혁되는 시기에 생성되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졌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다음에는 王土思想이 신라 국내에서 生成·流布하는 배경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17) 예를 들면, 사원의 건립이나 사제의 희사를 금한 기사로서는 『三國史記』文武王 4年(664) 8月 14日條 및 『三國史記』哀莊王 7年(806) 春3月條들이 있다.

18) 日本中世의 예이지만 河音能平, 앞의 논문(1976), 19~22 쪽은 지배사상인 王土概念 中世的 王土思想이 律令制 支配體制의 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형성되어 발전해 가는 모습을 사회 경제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貞觀5年(863)에 僧眞紹가 율령의 원칙을 범해서 俗人인 藤原朝臣關雄의 東山 住宅을 買得하여 이를 禪林寺라 하였을 때에 「誠欲報先帝之鴻恩果區之至願 夫普天之下莫不王地 所作之功德皆悉資國王大臣」(『日本三代實錄』貞觀5年(863) 9月 6日條)라고 말하고, 이러한 不法행위들을 王土思想을 통해 합리화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 즉 天皇을 위해 행해진 것은 비록 그것이 율령을 범하는 행위라고 해도 王土 상의 일이라면 허용되었다고 한다.

19) 자세히는 注(2)를 참조. 더하여 吉田孝, 앞의 논문(1983), 54~55 쪽은 大崇福寺碑에 보이는 王土 관련부분을 자료적 근거로 신라에는 일찍부터 중국적 王土思想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되풀이해 말했듯이 위의 비문 기사는 신라시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신라말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I. 國內外 情勢의 變化와 六頭品知識人의 現實認識

王土思想이 표면화되는 新羅末의 憲康王·定康王·眞聖女王의 시기는 國內外 情勢가 크게 변동하는 시기였다. 支配者層의 의식도 더불어 변화가 생겼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신라의 王土思想의 生成背景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四山碑銘』의 撰者인 崔致遠으로 대표되는 六頭品知識人 및 당시의 지배자층의 新羅國土 및 國家支配의 內와 外에 대한 인식을 당시의 시대배경을 고려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9세기 후반의 신라에서는 六頭品知識人, 특히 唐에의 유학 경험을 갖는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진출이 현저해진다.<sup>20)</sup> 당 유학 경험을 갖는 六頭品知識人의 대표적인 주자인 崔致遠(字는 孤雲, 857~?)은 국왕에게 時務十餘條를 建議하여 그 공적으로 阿湊의 지위를 얻기까지에 이른다.<sup>21)</sup> 특히 崔致遠의 時務十餘條 건의는 眞骨이 아닌 六頭品인 그가 국왕에 건의한 것이다. 이것으로 신라 국가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고 하는 李基白의 지적도 있듯이<sup>22)</sup> 9세기 후반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列傳 第6 崔致遠傳에 의하면, 崔致遠은 12세에 入唐하여 憲康王 10年(884)에 28세의 나이로 귀국한다. 18세에서 唐의 賓貢科에 及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의 관직을 역임한다. 또한, 黃巢의 亂 토벌 때에는 淮南節度使 高駢의 從事官으로 군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아, 다방면에서 당 정세에 정통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재당 경험으로 다져진 뛰어난 국제감각을 바탕으로 崔致遠은 신라의

20) 李基白, 「新羅 骨品體制下的 儒教的 政治理念」, 『新羅思想史研究』(一潮閣, 1986); 李基東, 「新羅 下代 賓貢及第者의 出現과 羅唐文人의 交驛」,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申滄植 「羅末麗初의 宿衛學生」, 『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등이 선구적 연구이고 全基雄 「新羅 政治社會의 動搖과 六頭品知識人」,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해안 1996); 全基雄 「羅末麗初 知識人階層의 形成」,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해안 1996) 은 이 시기의 六頭品知識人의 활동을 논한 전문적 연구이다.

21) 『三國史記』 眞聖女王 8年(894) 2月條 지금까지 崔致遠의 사상이나 정치적 입장을 논한 연구성과는 많이 있지만 崔英成, 『崔致遠의 哲學思想』(아세아문화사, 2001); 李在云, 『崔致遠研究』(백산자료원, 1999)는 그 전문적 연구이다 또 浜田耕策等 『崔致遠撰「桂苑筆耕集」に關する總合的研究』(平成13~14年度九州大學教育研究プログラム研究據點形成プログラムB-2 研究成果報告書, 2003)은 그에 관한 연구성과를 연도별로 정리한다.

22) 李基白, 앞의 논문(1986), 233~236 쪽

외교업무를 담당한다. 왕명을 받아 당에 보내는 眞聖女王의 讓位文을 비롯하여, 謝嗣位表, 謝恩表, 表謝不許北國居上表等<sup>23)</sup>의 表를 代作하는 등의 외교업무를 담당한 지배자층의 한 사람이었다.

崔致遠이 왕 대신에 대작하여 당에 보낸 表에는 신라가 놓여진 입장을 국내외 정세에 맞춰서 기술된 장면이 몇 가지 보인다.<sup>24)</sup> 또한, 작자인 崔致遠(六頭品知識人)의 新羅國土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신라가 직면한 위기적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이는 것은 897년에 眞聖女王 대신에 대작하여 당에 보낸 다음의 讓位文이다.<sup>25)</sup>

자료 7

而及愚臣繼守 諸患併臻 始則黑水侵疆 會噴毒液<sup>①</sup> 次及綠林成党 競簸狂氣 所管九州 仍標百郡 皆遭寇火 若見劫灰<sup>②</sup> 加復殺人加麻 曝骨加莽 滄海之橫流日甚 昆岡之猛焰風顛 致使仁鄉 變爲疵國·(崔致遠撰, 『讓位表』, 『東文選』 卷43).

위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신라의 지배자층 적어도 지식인들은 黑水侵疆과 綠林成党을 신라의 국가체제를 흔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위의 자료에는 「變爲疵國」라고 표현됨)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下線部<sup>①</sup>처럼 黑水가 疆域에 侵犯해 毒液을 噴하였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黑水國人이 신라국내의 東北境에 침입해 와서 약탈 행위들을 일삼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黑水國人이 신라 동북 경에 침입해 온 것은 이 기록에 앞서 『三國史記』 憲康王 12年(886) 春條에도 보인다.

十二年春 北鎮奏 狄國人入鎮 以片木掛樹而歸. 遂取以獻 其木 書十五字云 寶露國與黑水國人 共向新羅國和通.

위의 자료에서 보이듯이 北鎮이 중앙정부에 奏上한 내용에 의하면, 狄國人이 鎮에 15字를 적은 木札를 휴대해 와서 신라와의 교섭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23) 『東文選』 卷43 및 卷33. 자세한는 李在云, 앞의 책(1999), 43~45쪽을 참조함.  
 24) 注(20) 및 (21)의 책 이외에는 李基東,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의 책(1984); 浜田耕策, 「唐朝における渤海と新羅の爭長事件」, 『新羅國史の研究』(吉川弘文館, 2002) 등을 참조  
 25) 이 讓位文은 이미 李基東이 자세히 언급했다. 李基東, 앞의 논문(1984), 175~177 쪽을 참조

에 대한 신라정부의 대응은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狄國人이란 寶露國·黑水國人이라 자칭하는 것으로 보아, 자료7-①의 黑水(國人)와 같은 성격일 것이다. 黑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渤海國에 속하는 靺鞨系 種族이라고 하는 견해와 安邊 부근의 女真人이라고 상정하는 견해들이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형식의 교섭신청이 있었던 것은 신라가 그때까지 그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가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해준다.<sup>26)</sup> 그러한 것도 있어 신라의 지배자층은 새롭게 나타난 그들의 행동을 자료7처럼 野蠻이라고 받아들이며, 그를 國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건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에 관련해서 李基東은 憲康王이 북진의 보고 직후인 886년 6월에 薨去한 것도 이 사건의 충격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sup>28)</sup>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신라의 지배자층·지식인이 黑水人, 넓게 말하면 外敵의 침입에 대해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畏怖의 대상이라고 인식하였던 사회적 상황이 배경으로 존재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환기되는 것이 唐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東아시아 정세이다. 특히, 당 국내에서 일어난 王仙芝·黃巢의 亂(874~884)은 당과 긴밀한 연대성을 유지한 신라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된다. 예를 들면, 崔致遠撰 「謝恩表」(『東文選』 卷33) 등에는 憲康王이 黃巢의 亂에 대한 대응책을 재촉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지만, 일단은 원조가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지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것처럼, 이 이전의 羅唐關係에서는 당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신라가 兵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협력이 전제되어 있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9세기의 신라에서는 唐 留學熱이 최고조에 도달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파견되어 있었다.<sup>29)</sup> 그렇지만 黃巢의 亂 때는 양상이 약간 달랐다. 이를

26) 李成市, 「八世紀新羅·渤海關係の一視角: 『新唐書』新羅傳長人記事の再檢討」, 『東アジアの國家と民族』(岩波書店, 1998), 399-402 쪽

27) 동시기의 일본에서는 新羅賊의 침공을 비롯하는 外壓이 귀족들의 대외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鈴木靖民, 「遣唐使の停止に關する基礎的研究」,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保立道久, 『黃金王國 東アジアと平安日本』(青木書店, 2004)를 참조

28) 李基東, 앞의 논문(1984), 176 쪽

29) 李基東, 위의 논문, 282~291 쪽;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研究』(一潮閣, 1997)은 그 관계 기록에 대한 전문적 연구이다.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黃巢의 亂으로 혼란한 당 국 내정세가 신라로 과급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한 시점과 관련하여 같은 崔致遠들이 작성한 다음 자료8을 보면 당 정세의 신라에의 과급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現實認識을 더욱 상세히 찾아볼 수 있다.

자료 8

◎ 海印寺妙吉祥塔記 崔致遠撰(前面)

唐十九帝中興之際 兵凶二災西竭東來① 惡中惡者無處無也 餓殍戰骸原野星排

② 粵有海印寺別大德僧訓 畫傷痛于是 乃用施導師之力 誘彗衆之心 各捨茅實一科 共成珉甃三級·時乾寧二年(895)申月既望記 大匠僧蘭交.

◎ 五臺山寺吉祥塔詞 五臺山寺吉祥塔詞除序 沙門僧訓撰(前面)

自西及卯 一七年中 方圓濁亂 原野兵蓬 人忘向背 行似狼狽 邦垂傾破 災接蓮宮

③ 護國三寶 法衆願同 交刃祿林 亡身品叢·乾寧二年夷則建

◎ 哭縑軍 僧訓(後面)

濁數西來及薛羅④ 十年狼豹困增加⑤ 吾師向覺天耶出 弟子脩仙豈免魔·僧釋  
喜 書

위의 자료는 慶尙南道 陝川郡 海印寺 부근의 石塔跡에서 출토된 4개 塼板에 적힌 것의 일부분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는 「海印寺妙吉祥塔記」라고 총칭되지만 895년 7월에 海印寺를 중심으로 주변 사원이 다음에 언급하는 자료9에 보이는 것처럼 盜賊蜂起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공양을 위해 합동해서 탑을 만들었을 때에 작성된 것이다.<sup>30)</sup> 下線部의 내용은 도적봉기가 횡행하여 新羅國土가 피폐해진 모습을 생생히 알려준다. 그 중에서도 塔記의 撰者인 崔致遠이나 僧訓들은 신라국토가 「惡中惡者無處無也·」, 「方圓濁亂原野兵蓬」 등(자료 8-②, ③, ⑤)이라고 말하면서

30) 이 자료에 대해서는 鄭炳三, 「海印寺 妙吉祥塔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第3卷)』, 河日植 「해인사전권(海印寺田券)과 묘길상탑기(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 제4권(1997)을 참조함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咸陽郡名宦條에 따르면 塔記를 작성한 崔致遠은 그 이전에 이 지역의 地方官인 天嶺郡太守를 역임하였다고 한다.

혼란한 원인을 「兵凶二災西竭東來」, 「濁數西來及薛羅」(자료 8 - ①, ④)라는 현상에 두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즉 그들 지식인들은 西側의 災(黃巢의 亂 등에서 혼란한 唐情勢)는 그것이 一時的이라도 안정되었다면, 東側(新羅)에 이동해 온다는 이른바 循環論의 사상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당 국내의 동요에서 시작하는 北東아시아 정세의 변화는 국제사정에 정통한 신라의 지식인·지배자층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들 사이에서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신라국토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을 생성시켰을 것이다. 자료 - ①처럼 신라국내에 진입해 온 黑水人에 대해 국토를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파악하게 된 것도 그러한 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된다. 즉, 異域으로부터 국가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排外的 의식이 현저하게 되면 당연히 국토에 대한 인식도 폐쇄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자층의 인식 변화가 內와 外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기의 공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王土思想의 생성에 연결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들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적 변화뿐만이 아니었다. 위의 자료 7-②에는 黑水人의 침입사건과 병렬하여 “다음에 綠林이 당을 결성하여 狂氣를 발하자 所管하는 九州와 百郡이 다 賊의 불난리를 만나서 劫灰를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배자층 및 崔致遠 등 六頭品知識人은 구체적으로는 다음 자료 9를 비롯한 국내에서 일어난 盜賊(地方勢力)의 봉기도 新羅王權을 흔드는 大事件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 9

① 三年 國內諸州郡 不輸貢賦 府庫虛竭 國用窮乏. 王發使督促. 由是 所在盜賊蜂起. 於是 元宗哀奴等 據沙伐州叛. 王命奈麻令奇捕捉. 令奇望賊壘 畏不能進. 村主祐連 力戰死之. 王下勅斬令奇. 祐連子年十餘歲 嗣爲村主(『三國史記』 眞聖女王 3年(889)條).

② 五年冬十月 北原賊帥梁吉 遣其佐弓裔 領百餘騎 襲北原東部落及溟州管内酒泉等十餘郡縣(『三國史記』 眞聖女王 5年(891)條).

③ 六年 完山賊甄萱據州 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三國史記』 眞聖女王 6年(892)條).

31) 河日植, 위의 논문, 25~27쪽.



- ④ 八年春二月 崔致遠進時務一十餘條 王嘉納之 拜致遠爲阿漚 冬十月 弓裔自北原 入何瑟羅 衆至六百餘人 自稱將軍(『三國史記』 眞聖女王 8年(894) 條).
- ⑤ 九年秋八月 弓裔擊取猪是狝川二郡 又破漢州管内夫若是圓等十餘郡縣(『三國史記』 眞聖女王 9年(895) 條).
- ⑥ 十年 賊起國西南 赤袴以自異 人謂之赤袴賊 屠害州縣 至京西部牟梁里 劫掠人家而去(『三國史記』 眞聖女王 10年(896) 條).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眞聖女王 3年(889)의 元宗·哀奴의 亂(자료9-①)을 전후해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盜賊蜂起가 전개되고 지방에 豪族이 대두하여, 신라왕권이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다고 논급되는 것으로도<sup>32)</sup> 상기할 수 있다. 특히, 자료9-③<sup>33)</sup>의 892년에 甄萱이 完山州를 근거로 後百濟(의 국호)를 건국(자칭)한 것은 지배자층의 현실인식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원래는 신라 영역이었던 곳에 후백제라는 다른 왕권이 수립되고 武州 東南郡縣이 외적인 후백제에 服屬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신라국토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弓裔政權 後高句麗의 수립이나 시각적으로도 신라왕권과의 대치를 명시하는 赤袴賊(자료9-⑥) 및 北原賊들의 대두는 한층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폐해지는 국내외 현실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신라말기의 지식인·지배자층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라국토를 둘러싸는 內와 外(境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국토인식은 당연히 폐쇄적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崔致遠 등 신라말기의 지식인이 王土라는 어구를 사용한 배경에는 위에서 말한 신라왕권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국내지배의 문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었다. 그 보다도 위에서 「海印寺妙吉祥塔記」를 통해 언급했듯이 이 시절 신라의 지식인들은 국토가 피폐하는 요인을 국외정세의 과급과 연결시켜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 다시 주목되어야 한다. 논점이 다소 다방면에 걸쳐진 느낌이

---

32) 李純根, 『新羅末 地方勢力의 構成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博士學位論文(1992); 蔡雄錫, 「新羅下代 社會變動과 富豪層의 성장」,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韓國古代史學會 編,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도서출판 1994)의 논문을 참조

33) 『三國史記』 列傳 第10 甄萱傳에는 보다 자세한 기록이 보인다

있지만, 여기서는 앞에서 해명한 王土의 성격을 바탕으로 그를 실제로 사용한 崔致遠을 비롯한 六頭品知識人의 신라국토에 대한 현실인식을 당시의 국내외 정세에 맞아서 검토하였다. 그를 통해 신라말기에 있어서 王土思想의 生成背景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IV. 新羅末期의 王土思想과 國家支配의 再建策

그렇다면 당시의 신라에 있어서 王土思想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앞 장에서 다 논하지 못하였던 王土思想과 國內支配의 문제와 관련시켜 다시 생각하고 싶다.

상술한 자료9-①의 下線部에는 889년의 이른바 元宗·哀奴의 亂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재되어 있다. 元宗·哀奴의 亂으로 국내의 諸州·郡이 貢賦를 수송하지 못하여, 王都에 있는 府庫가 虛竭하고, 국가재정이 궁핍해진 모습을 전하고 있다. 下線部の 다음에는 국가층의 대응책으로써 왕이 使者를 각지에 파견하여 貢賦의 수송을 재촉하자, 沙伐州의 元宗·哀奴를 중심으로 하여 각지의 도적세력이 일제히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三國史記』 列傳 第10 弓裔傳을 보면,

見新羅衰季 政荒民散 王畿外州縣 叛附相半 遠近群盜 蜂起蟻聚

도적 봉기의 규모가 王畿外の 半數 州縣에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 국내의 반수 이상의 지역이 신라왕권의 지배에서 떨어져 있고, 賊 때문에 半獨立 支配下로 변해져 버렸던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적(지방세력)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蔡雄錫의 연구를 비롯한 근년의 연구에서 지적됐듯이, 그들이 무엇보다도 대량의 動産과 耕地 貸與를 통해 富를 축적하여 富豪層으로서의 기반을 획득한 것에 있었다고 본다.<sup>34)</sup> 그들은 획득한 부를 보호하기 위해 自衛力을 익히고, 따라서 地

34) 『三國史記』 興德王 3年(828) 4月條에 “漢山州 瓢川縣에서 妖人이 세운 速富之術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해졌다”는 기사가 있는 것처럼, 지방세력의 富에 대한 욕구는 9세기 전반의 흥덕왕대 무

域共同體의 질서를 통합·재편하는 것이 가능한 무장력을 확보한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그 현저한 예로 고려를 건국하는 王建家門의 世系를 기록한 『高麗史』 高麗世系에 나오는 康忠이 있다. 그는 累千金의 재산을 가지고, 郡人과 함께 행동하여 郡의 이름을 松嶽郡으로 개명하기에 이른다. 이후에 軍의 上沙粲이 되고 부호층이자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재편한 인물인 것이다.<sup>36)</sup>

다시 말하자면, 9세기 이후 신라에서 한층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호층의 사적 경제활동은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왕의 稅 收取體制나 土地制度를 크게 붕괴시키고, 국가의 지배체제를 해체로 향하게 하였다.<sup>37)</sup> 그러한 가운데 富豪層은 무장화한다. 그들은 국가에 세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元宗·哀奴<sup>38)</sup>처럼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新羅王權에서 보면 기왕의 租稅가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압박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의 위기와도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에 직면한 신라국가에 있어서는 모자란 稅收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기왕의 재정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지배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배사상의 구축이 불가결하게 되었음은 상상하기

렵부터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었다. 趙仁成, 「新羅末 農民反亂의 背景에 대한 一試論」,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도서출판 1994), 25~27 쪽 그리고 신라 富豪層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 중세의 사례이지만 그들의 경제기반이 토지가 아니라 動産에 의거한 것을 구명한 戶田芳實, 「中世成立期の所有と經營について」, 『日本領主制成立史の研究』(岩波書房 1967)의 연구는 크게 참조된다.

- 35) 蔡雄錫, 앞의 논문(2000), 29~39쪽. 蔡雄錫에 의하면 富豪層이나 지방세력은 불교를 매체로 한 香徒를 기반으로 自衛組織을 형성·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된다. 蔡雄錫, 위의 논문(2000), 43~58쪽
- 36) 康忠을 비롯하는 王建家門의 세력 기반에 대해서는 鄭淸柱, 「王建的 成長과 勢力 形成」, 『新羅末 高麗初豪族研究』(一潮閣 1996)을 참조
- 37) 李喜寬, 「統一新羅 土地制度의 特質 특히 國家의 農民支配의 側面에서」, 앞의 책(1999); 崔根泳, 「新羅分裂과 後三國成立의 背景」, 『統一新羅時代の 地方勢力研究』(도서출판 1990); 注(32)의 논문들을 참조. 또한 이러한 점의 구체적 해명에는 木村茂光, 앞의 논문(2004)나 佐藤泰弘, 「莊園制と都鄙交通」, 『日本史講座3 中世の形成』(東京大學出版會 2004)를 비롯하는 일본 중세의 사회경제사의 연구성과도 참고가 된다.
- 38) 억측을 말하자면 元宗·哀奴라는 인물은 某奴라는 이름으로 보아도 원래부터 百姓이 아니라 奴婢 신분이었던 사람(金壽泰, 「趙仁成, 앞의 논문에 대한 토론」, 38쪽) 신라말의 사회변동 속에서 부를 축적하여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까지 성장을 이룬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렵지 않다.

이러한 신라말기의 社會 經濟的 變화를 생각한다면, 처음으로 성격을 고찰한 『四山碑銘』에 보이는 王土思想은 生成 배경은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인데 재정부족 등 쇠퇴해지는 국가질서를 재건하기 위해서 채용된 지배사상이었을 것이다. 특히, 王土를 田地의 회사나 매매와 관련하여, 公田이나 私田(사유지)의 개념을 超越하는 의미로 사용된 鳳巖寺 智證大師碑나 大崇福寺碑가 889년의 元宗·哀奴의 亂과 892년의 後百濟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 또는 건립된 사실은 그러한 이유를 더욱 환기시켜 준다. 무엇보다 비문을 작성한 崔致遠이 신라로 귀국한 후에는 大山·富城·天嶺諸郡의 太守 등 地方官을 오랫동안 역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비문은 그의 현실인식 및 체의에 의거한 부분이 컸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崔致遠 이외에도 당시 六頭品 知識人들은 지방관으로서 활약한 사람이 많았다.<sup>39)</sup> 신라의 국운이 가장 기울어지는 894년에 崔致遠이 국왕에게 時務十餘條를 건의한 것<sup>도</sup> 자료9-④ 지역사회의 실정과 정세에 정통한 그들의 인식 표명의 하나로 보인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조문의 내용도 피폐한 지역사회의 재편을 바란 것이었다고 짐작된다.<sup>40)</sup>

더구나 위의 점을 지적하는 데 비문이 건립된 소재지의 역사적·지리적 환경은 더욱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후백제 건국의 다음 해(893)에 작성이 시작된 鳳巖寺 智證大師碑가 위치하는 尙州 嘉善縣(현재의 경상북도 聞慶郡 加恩邑 院北里)은 신라 景德王代 이전의 加善縣이고, 고려시대에는 고려말에 문경의 屬縣이 될 때까지 加恩縣이라 칭해진 신라국내에서도 일찍부터 鷄立嶺路가 개통되어 陸上交通의 요충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지역이었다.<sup>41)</sup> 그리고 『三國史記』列傳 甄萱傳에 보이는 다음 기록에 의하면,

甄萱 尙州加恩縣人也. 本姓李 後以甄爲氏. 父阿慈介 以農自活後起家爲將軍

39) 全基雄, 앞의 논문(1996), 77~81쪽; 崔根泳, 앞의 논문(1990), 182~185쪽에 자세히 다

40) 全基雄, 위의 논문, 49-54 쪽은 時務十餘條의 내용을 여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41) 徐榮一, 「鷄立嶺路」, 『新羅陸上交通史研究』(學景文化社 1999).

甄萱의 출신지는 尙州 加恩縣이었고, 견훤의 아버지 阿慈介는 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將軍이 되었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및 그 선조 가뎀 가 바로 智證大師碑가 위치하는 경북 문경에서 부호로서의 기반을 쌓아올려 무장화하고, 이 지역을 통솔하는 장군의 지위에까지 올라간 것이다.<sup>42)</sup> 더군다나 元宗·哀奴가 거점지역으로 한 沙伐州(현재의 경상북도 尙州郡 尙州邑)도 이 尙州 嘉善縣과 인접하였다. 이 지역 일대가 국가에 세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한 賊勢力의 거점으로써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는 국가지배의 힘이 미치지 않았고, 적 세력의 활동을 조장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智證大師碑는 신라의 국가지배에서 떨어진 적 세력의 활동거점 중심지에 건립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에 국왕이 명을 내려서 비뚤 기재내용도 국왕에 관련됨을 건립시킨 행위 자체가 실제 양상과는 逆行하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석의 건립목적이 어느 의미에서는 적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 장에서 검토한 王土의 성격에 이러한 비의 건립목적은 가미한다면, 王土思想이 이 지역에서 짙어진 역할은 물론 국가가 그것을 채용한 이유들이 분명해진다고 생각한다.

智證大師碑의 王土 기재 부분은 원래는 금지된 행위를 王土라는 명분과 왕의 인가를 얻는 방법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더욱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적 세력(부호층)의 영향력이 강하고 조세체계에서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구조의 재편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지배가 미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王土라는 이유(王土思想)로 土地集積의 행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새로운 收取體系를 확립하여 국가지배력의 재편을 이념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sup>43)</sup> 전술한 것처럼, 大崇福寺碑의 王土 관련 부

42) 申虎澈, 「甄萱의 出身과 社會的 進出」, 『後百濟甄萱政權研究』(一潮閣, 1983); 金壽泰, 「後百濟 甄萱政權의 成立과 農民」, 『百濟研究』, 제29집(1999); 洪承基, 「高麗時代의 農民과 國家」, 『高麗社會經濟史研究』(一潮閣, 2001) 등을 참조

43) 注(18)에서 언급한 듯이 일본 중세의 경우의 王土思想은 律令制支配가 동요하는 시기에 형성되었다. 河音能平, 앞의 논문(1976)에 따르면, 일본의 中世國家가 王土思想을 채용한 이유는 국가의 國衙를 매개로 한 公田 지배체제가 別名制의 성립이나 莊園의 확대들을 계기로 해체되는 것에 따라 國衙領·莊園을 불문하고 평균적으로 부과하는 天下一同의 公役, 國內平均의 所課라 불린

분에서도 역시 公田이 아닌 토지영역에 대해 王土思想을 통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강제력을 발휘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위의 두 비에 비하여 작성 및 건립 연대가 약간 빠른 眞鑑禪師碑의 王土도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피폐한 국가지배의 재건을 바라고 채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료8의 「海印寺妙吉祥塔記」를 통해 비석이 위치하는 智異山 雙溪寺에서 근거리에 있는 陝川 伽耶山の 海印寺에서도 草賊 봉기가 그치지 않았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신라말기에 생성된 王土思想은 기왕의 국가질서를 초월해서 그를 재편하기 위한 지배사상인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 특징을 해명하는 데 한층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는 眞鑑禪師碑의 王土를 검토한 곳에서 상술한 것처럼, 王土思想과 佛法(불교)이 일체의 관계에 의해 기능한 점이다. 더하여 智證大師碑에서도 王土를 강조하는 자료6에 계속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及大師追往化數年 有山毗爲野寇者 始敢据輪終能食菑 得非深輿定水 預沃魔山  
之巨力與 使折臂者標義 掘尾者制狂 開發之是四焉(「智證大師碑」).

국가에 저항한 野寇(賊)들이 佛法(法輪)에 의해 ㄱ 그 위에는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는 왕권이 존재하였음)에 귀의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王土思想이 佛法 즉, 國土=佛土의 이념으로 한층 보강되어 기능한 것을 생생하게 말해 준다.44)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불교)은 비의 건립된 장소가 禪宗 사원내이고, 기재내용의 중심도 禪師의 내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종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신라의 王土思想과 禪宗의 사상적 관계는 물론 국왕의 명으로 비석이 사원 안에 건립된 의의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

중세적 국가적 租稅(一國平均稅)를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를 지탱하는 이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배사상의 구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중세에 있어서 王土思想의 채용은 무너져 있던 국가재정의 확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木村茂光 앞의 논문(2004), 19-20 쪽에 의하면, 일본의 王朝國家는 王土思想을 바탕으로 국가적 課役으로부터 피하고 있던 富豪層을 公役으로 흡수하고, 公田支配의 再編을 실행하고자 하였다고도 한다. 자세한 검토는 이후의 과제로 하고 싶지만, 본문에서 논급한 신라말기의 王土思想과도 공통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44) 佛土와 王土의 관계에 대해서는 注(13)에서 간단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를 참조함. 또 河音能平 앞의 논문(1976), 22-34쪽에 따르면 王土概念은 佛法과 함께 기능하는 것으로 비로소 王法과 표리 일체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점이 신라말기의 사회정세를 상징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근년의 신라 禪宗寺院 연구를 통해 그 사회적 의의가 분명하게 되고 있다. 이른바 禪門九山派의 사원은 新羅下代의 사회적 변동 속에서 王京이 아닌 지방을 거점으로 성립한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방세력과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國王·眞骨貴族들 王京人의 막대한 원조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왕경(중앙)과 지방의 유대역할을 형성하는 시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그래서 신라국가가 새로운 지배사상의 역할을 하는 王土思想을 국가지배에서 이탈한 부호층들과 지방세력의 사이에 流布하기 위해 선종사원을 매개로 하고자 한 것은<sup>46)</sup> 지방세력과 가까이 하면서도 왕권과도 접촉이 가능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짐작된다.

## V. 맺음말을 대신하여: 田券製作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한 신라말기에 있어서 지배자층·六頭品知識人들의 인식 속에 王土思想이 생성·채용된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四山碑銘』이 작성된 거의 같은 시기인 9세기 후반부터 말기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田券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간단히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의 田券이란 기존의 연구에서도 일찍부터 그 존재 의의가 분명하지만 眞聖女王 5년(891)에 제작된 현존 유일한 자료인 開仙寺 石燈記와 梅溪曹偉의 「書海印寺田券後」(『梅溪集』所收)를 가리켜 말한다.<sup>47)</sup> 후자의 海印寺 田券은 曹偉가 15세

45) 曹凡煥, 「朗慧無染과 聖住寺 創建」, 『新羅禪宗研究: 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中心으로』(一潮閣, 2001); 曹凡煥, 「聖住山門과 新羅王室」, 『新羅禪宗研究: 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中心으로』(一潮閣, 2001); 近藤浩一, 「九世紀中葉・聖住寺と新羅王京人の西海岸進出」, 『入唐求法巡禮行記に関する文獻校訂および基礎的研究』(平成13年度~平成1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成果報告書 2005)들을 참조함. 또한 당시 왕경(중앙)에 있는 華嚴宗 사원과의 사이에서 빈번한 교류가 행해져 있었을 것도 지적되어 있다. 崔源植, 「新羅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제9집 (1985).

46) 주지한 대로 왕권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華嚴宗이다. 자세한 것은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民族社, 1990) 등을 참조함

47) 田券이란 土地의 賣買·贈與·相續·質入 등 토지 소유권의 이전 혹은 변동 때에 그것을 명시하여 소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증거이다. 旗田巍, 「新羅·高麗의 田券」,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72)는 신라의 田券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구적 연구이다. 그 이후의 연구성과

기 후반에 거기서 발견된 43通의 문서를 기록에 남겼다는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에 따르면 買田庄券也라는表記나 年度를 기재하고 있으며, 878년부터 895년이라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田券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sup>48)</sup> 그리고 전자의 全羅南道 潭陽郡에 있는 開仙寺 石燈記는 龍紀3년(891)에 僧侶 入雲이 구입한 토지의 永代保全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지만, 그곳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sup>49)</sup>

常買其分保坪大業渚水田四結 畦□□  
 □□□  
 土南池宅土西川 奧水田十結 畦上南池宅土  
 東令行土北同 □東令行土西北同(「開仙寺石燈記」).

그 중에서도 본고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은 토지의 東西南北을 山川 등 자연 조건과 함께 四周의 土地所有者名(池宅, 令行)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다. 이 四標(四至) 표시는 四境界線으로 內와 外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기의 영역(공간)을 확인(혹은 정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현재화하는 것은 土地私有 의식의 반영을 가리키는 것과 함께 경계의식이 신라국내에서 상당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더구나 이에 가까운 표식은 田券이 아니라도 위의 자료 6-②나 다음의 『四山碑銘』을 비롯하는 신라말기에 작성된 비문에도,

於是(憲康王)遣輜軒 標放生場界 則鳥獸悅 紐銀鉤 扎聖住寺題 則龍蛇活 盛事畢矣(崔致遠撰 「萬壽山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라 하여 田券이 작성된 거의 동시기에 국왕이 使者를 파견하여 새롭게 鳳巖寺나 聖

는 鄭早苗, 「開仙寺石燈記」, 『朝鮮學報』, 제107집(1983); 李泰鎭, 「畦田考」, 『韓國社會史研究』(知識產業社, 1986); 河日植, 앞의 논문(1997)이 있다.

48) 年度가 분명한 것은 880·882·885·891·894년이다(河日植 앞의 논문(1997), 17 쪽).

49) 釋文 및 자료적 성격은 鄭早苗, 앞의 논문(1983)을 참조함. 이 자료 중에는 金入宅의 하나 池宅이 기재되어 있어 기왕의 여러 연구에서도 眞骨貴族의 경제적 기반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자주 인용되었다. 그리고 전반부의 표기에 의하면 開仙寺 石燈은 위의 자료의 石刻에 앞서서 咸通9年(868)에 景文王·文懿皇后·大娘主(眞聖女王)들의 도움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住寺 등의 사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기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신라의 田券에 대해서는 현재 분명한 예가 위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四標(四至) 표시가 신라 후반에 들어 처음 현재화하였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憲康王부터 眞聖女王의 시기에 걸쳐 田券이 집중되어 제작된 것은 사실이며, 이 시절에 자기와 다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의 식이 보다 강화된 것은 확실하다. 더구나 田券의 제작된 開仙寺나 海印寺의 지역이 王土를 기재하는 『四山碑銘』의 소재지와 사회적 성격이 흡사하는 것도 田券의 제작과 王土思想의 채용·유포가 연동하여 이루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입증한다. 그렇다면, 당시의 지배계층·지식인에 있어 王土思想이 피폐해진 국가 지배를 재건하기 위한 사상적·이념적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田券의 제작은 그 영향을 받은 구체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세한 검토는 이후의 과제로 하고 싶지만, 기왕의 국가질서를 초월하는 새로운 지배사상으로서 王土思想이 생성·채용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에 머물지 않고 신라국가·왕권을 둘러싼 정치·외교부터 사회·경제에 이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큰 변동을 한 것을 의미한다. 신라는 그 반세기 후인 935년에 멸망하지만 王土思想의 생성 시기가 거기로 향하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신라 멸망을 시야에 넣은 新羅 中世社會에 대한 성격 해명이라는 매우 큰 과제에 힘써야 할 것 같다.

## 참고문헌

-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김두진, 「曠陽山門의 성립과 宗系の 변화」, 『靑溪史學』 제18집 2003, 141~172 쪽  
 김두진,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金壽泰, 「後百濟 甄萱政權의 成立과 農民」, 『百濟研究』 제29집 1999, 83~100 쪽

50) 또한 智證大師碑의 속에는 「防後爲基 起瓦簷四柱以壓之 鑄鐵佛二體以衛之」라는 기재가 보이지만, 四方에 堀을 깔아 그 안을 佛力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의미인 것으로 본문과 마찬가지로 寺의 경계를 새롭게 명시하는 유례의 하나에 포함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서울: 民族社, 1990.
- 金福順,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서울: 民族社, 2002.
- 金三守, 「三國遺事に 나타난 所有權事例에 관한 考察」. 『法史學研究』 제7집, 1983, 1~40쪽.
-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研究』. 서울: 一潮閣, 1997.
- 朴時亨, 『朝鮮土地制度史(上)』.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0.
-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研究』. 서울: 一潮閣, 1983.
- 徐榮一, 『新羅陸上交通史研究』. 서울: 學景文化社, 1999.
- 申澄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서울: 一潮閣, 1984.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서울: 一潮閣, 1984.
-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李佑成, 『韓國中世社會研究』. 서울: 一朝閣, 1991.
- 李佑成校(譯), 『新羅四山碑銘』.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5.
- 李純根, 『新羅末 地方勢力的 構成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李泰鎭, 『韓國社會史研究』. 서울: 知識産業社, 1986.
- 李在云, 『崔致遠研究』. 서울: 백산자료원, 1999.
- 李喜寬, 『統一新羅土地制度研究』. 서울: 一潮閣, 1999.
- 이인철, 『신라 정치경제사 연구』. 서울: 일지사, 2003.
- 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서울: 혜안, 1996.
- 鄭淸柱, 『新羅末高麗初豪族研究』. 서울: 一潮閣, 1996.
- 曹凡煥, 『新羅禪宗研究 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中心으로』. 서울: 一潮閣, 2001.
- 曹凡煥, 「新羅 下代 智證道憲과 曦陽山門의 성립」. 『新羅史學報』 제2집, 2005, 141~172쪽.
- 趙仁成, 「新羅末 農民反亂의 背景에 대한 一試論」.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도서출판, 1994.
-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서울: 圖書出版, 1990.
-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제17집, 1972, 79~114쪽.
- 崔英成, 『崔致遠의 哲學思想』.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1.
- 崔源植, 「新羅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제49집, 1985, 1~25쪽.
- 河日植, 「해인사전권(海印寺田券)과 묘길상탑기(妙吉祥塔記)」. 『역사와 현실』 제24집, 1997, 12~39쪽.
-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第三卷)』.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82.

- 洪承基, 『高麗社會經濟史研究』. 서울: 一潮閣, 2001.
- 黃壽永(編), 『韓國金石文總覽(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 伊藤喜良, 『日本中世の王權と權威』. 思文閣史學叢書, 1993.
- 勝浦令子, 「古代における禁獵區政策」. 『古代史論叢下卷』. 吉川弘文館, 1978.
- 河音能平, 『中世封建社會の都市と農村』. 東京大學出版會, 1984.
- 木村茂光, 『國風文化の時代』. 青木書店, 1997.
- 木村茂光, 「10世紀の轉換と王朝國家」. 『日本史講座3 中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2004.
- 近藤浩一, 「九世紀中葉・聖住寺と新羅王京人の西海岸進出」. 『入唐求法巡禮行記に關する文獻校訂および基礎的研究』. 平成13年度~平成1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成果報告書, 2005.
- 佐藤弘夫, 『神・佛・王權の中世』. 法藏館, 1998.
- 佐藤泰弘, 「莊園制と都鄙交通」. 『日本史講座3 中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2004.
-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 鄭早苗, 「開仙寺石燈記」. 『朝鮮學報』 제107집, 1983, 125~160쪽.
- 戶田芳實, 『日本領土制成立史の研究』. 岩波書店, 1967.
-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 浜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浜田耕策等, 『崔致遠撰「桂苑筆耕集」に關する總合的研究』. 平成13~14年度九州大學教育研究プログラム研究據點形成プログラムB-2研究成果報告書, 2003.
- 浜中昇,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法政大學出版局, 1986.
- 平中荅次, 『中國古代の田制と税法』. 東洋史研究會, 1976.
- 保立道久, 『黃金王國: 東アジアと平安日本』. 青木書店, 2004.
- 堀敏一,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及古書院, 1994.
- 三谷芳幸, 「律令國家の山野支配と王土思想」. 『笹山晴生編 日本律令制の構造』. 吉川弘文館, 2003.
- 村井章介, 「王土王民思想と九世紀の轉換」. 『思想』 제847집, 1995, 23~45쪽.
- 村井章介, 「九世紀日本の國家意識と國際意識」. 『アジア遊學』 제6집, 2001, 106~110쪽.
- 吉田孝, 『律令國家と古代社會』. 岩波書店, 1983.
- 李成市, 『東アジアの國家と民族』. 岩波書店, 1998.

## 국문 요약

9세기말, 崔致遠이 왕명을 받아 찬술한 眞鑑禪師碑와 智證大師碑, 大崇福寺碑의 내용에는 王土라는 어구가 수차례 등장한다. 우선 이들 사료를 통해서 9세기말의 신라에서는 모든 땅이 王土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러한 王土思想이 王者의 권위를 보여주는 지배사상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왕의 법력·왕명이 미치는 땅인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內와 外를 구분하는 경계인식을 포함하면서, 內의 신라국토를 새롭게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王土思想에는 기왕의 法을 합리화시킬 만한 힘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왕권이나 국가는 王土라는 새로운 지배사상을 이용함으로써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행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여기서 말하는 王土란 무제한하게 퍼지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극히 한정된 지배영역을 의미하고 있었다.

王土思想이 표면화되는 憲康王·定康王·眞聖女王의 시기는 國內外 情勢가 크게 변동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唐에의 유학 경험을 갖는 六頭品知識人의 사회적 진출이 현저해졌고, 지배자층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짐작된다. 崔致遠이 왕을 대신하여 작성한 당에 보낸 表에는 신라가 처한 상황을 기술한 장면이 보인다. 그들은 唐을 중심으로 하는 東아시아 정세 속에서 黑水侵疆(外敵의 침입)과 綠林成窟(元宗·哀奴의 亂을 비롯한 盜賊蜂起나 後百濟의 건국)을 신라의 국가체제를 흔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배자층의 인식 변화가 內와 外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기의 공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王土思想의 생성에 연결되었다고 본다.

9세기 이후 신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호층은 스스로를 무장화하는 것으로써 국가에 세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라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쇠퇴해져가는 국가질서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賊勢力과 관계 깊은 역사적·지리적 환경의 지역에서 王土를 公田이나 私田의 개념을 超越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碑土 원래의 건립목적을 가미한다면, 이 지역에서의 王土思想의 역할은 물론 신라왕권이 이 사상을 채용한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한다. 王土思想은 국가지배가 미치지 않은 영역에서의 土地集積의 행위를 王土라는 이유로 정당화시켜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수취체계를 확립하는 국가지배력의 재편을 이념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왕의 국가질서를 초월한 지배사상으로써 채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田券이 제작된 사실도 王土思想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 모습이라고 추정하였다.

● 투고일 : 2006. 1. 16.

● 심사완료일 : 2006. 3. 2.

● 주제어(keyword) : 신라왕조(the Silla Dynasty), 최치원 (Choe, Chi-wons),  
사산비명(Monument of four mountains), 왕토 (King Ground),  
국내외정세의 변화(Change of the situation in and outside the country),  
지배사상 (new rule thought)